林悌 문학관 건립부지 선정 논란

〈임제〉

나주시 33억 들여 추진 … 다시면 영모정 일대 유력 후보지

주민들 "접근성에 문제 … 천연염색문화관 인근이 어떤가"

조선시대 천재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백호(白湖) 임제(林悌) 문학관 부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시가 33억여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임제 문학관 건립 사업은 한국종합예술대학 이모(51)교수의 용역 결과 다시면 회진리 영모정 일대가 유력한 후부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영모정 일대는 경관이 수려한데다 임제 선생이 문학 활동을 했던 곳으로 개발 보다는 보존의 값어치가 높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 인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영모정이 나주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등 관광객이 찾기 힘든 곳이어서 자칫 유명무실한 문학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영모정과 2㎞ 거리에 위치해 있는 천연염색문화관 인근 부지에 문학관을 건립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 천연염색문화관에는 일반인과 학생 등 하루 500여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어 문학관과 연계한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홍기 나주 천연염색관장은 "천연염색관 부근에 문학관이 생기면 관광객들이 자연스레 문학관을 방문할 수 있어 새로운 관광 코스로 부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용역결과와 문중 의사를 반영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며 "부지 선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오색단풍의 유혹에 빠져보세요"

피아골 단풍축제 내달 3~4일 이틀간 열려

'제 31회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가 오는 11월 3·4일 이틀간 연곡사 일대에서 열린다.

'삼홍과 함께 하는 오색단풍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단풍축제에서는 단풍제례 행사를 시작으로 단풍 숲 음악회와 대북공연, 남부군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전국 등산대회와 단풍 사생대회, 피아골 단풍체험과 빨치산 은거지 탐방체험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단풍소원 리본달기, 단풍즉석 사진이벤트, 단풍추억 낙서관, 단풍 전통 떡 만들기 등으로 꾸며진다.

또 행사장 주변에는 산수유 술과 버섯전골 등 향토 음식별미 등 풍성한 먹거리도 마련된다.

구례군은 올해 단풍축제부터 내빈소개와 축사, 환영사 등 전시 허례적인 공식 행사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해남 명량대첩제 기념 郡, 우표 3종세트 발행

'제 410주년 해남 명량대첩제'를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됐다.

해남군은 26일부터 사흘간 우수영 울돌목 등지에서 열릴 명량대첩제를 기념하기 위해 우수영 전경 사진과 축제 포스터, 화보 등을 담은 우표 3종 세트를 제작했다.

가격은 1세트에 7천 원이며 20장으로 구성된 전지 세트와 명량대첩제의 포스터를 포함한 14장으로 구성된 세트, 해남의 명소를 담은 관광 우표 세트 등 총 300세트가 발행됐다.

이 우표는 축제기간 우수영 축제현장 관광안내소에서 한정 판매된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함평엑스포 나비열차 등장

함평군 대동면 자연생태공원에 엑스포 나비열차가 등장했다. 공원입구에서 관리사무소까지 1㎞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나비열차는 42석 규모로 운전석이 장수 풍뎅이 모양으로 장식돼 있고 좌석위에는 나비가 내려 앉아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광산구 음식물쓰레기 감량 나선다

전국 첫 첨단지역 시범단지 조성 자체처리기 가동

광산구에 전국 최초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범단지가 조성됐다.

광산구는 지난 24일 첨단 1동 라인 3차 아파트에서 '시범단지 음식물 쓰레기 자체처리기 가동식'을 갖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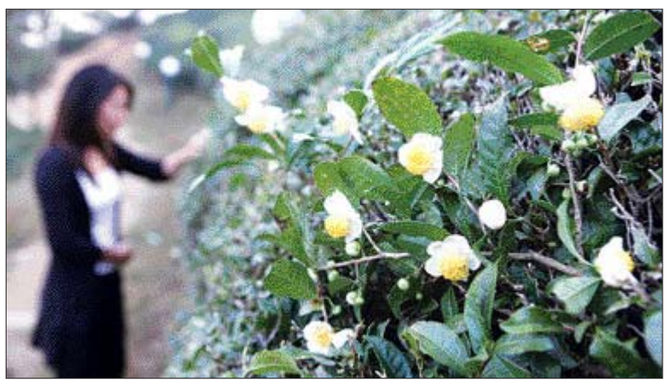
구는 지난 8월부터 첨단 1동 지역(23개 공동주택, 6천700세대)을 음식물 감량 시범단지로 선정, 청소장비 개선 업체인 청수하이클린(주)와 공동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시범단지 조성으로 첨단 1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연간 음식물 쓰레기 2천500여t에 대한 수거비와 처리비가 절감돼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 광산구 전 지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체처리기 설치 의무화 조례를 제정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청소예산을 대폭적으로 절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 청소행정 예산은 연간 130억원으로 이중 30%인 37억여원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사용되고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보성 녹차꽃 활짝

녹차의 고장 보성에 차꽃이 활짝 폈다. 차꽃은 꽃과 열매가 함께 마주보고 있어 실화상봉수(實花相逢樹)로도 불리며 오는 12월초 까지 향기를 감상할 수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농촌지역 농산물 절도범 함평경찰 올해 3건 검거

함평에서 농산물 절도범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함평경찰서(서장 신경문)는 지난 16일 농가 창고에 보관중이던 깨와 고추 등 7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이모(55)씨를 구속했다.

함평경찰서는 올들어 3건의 농산물 절도범을 검거한바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무항생제 장어 양식 성공

영암 업체 월출산 맥반석 암반수 미생물 배양 키워

영암에서 무항생제 장어 양식 기술이 개발됐다.

월출산 끝자락인 녹암(鹿岩·사슴바위) 마을에 자리 잡은 대영·덕암양만(養鰻)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월출산 맥반석 암반수와 기능성 미생물, 한방 사료만으로 장어 양식에 성공했다.

대영양만 김성대(54)씨는 1만 3천610㎡ 부지에 3천320㎡의 최첨단 양식장을 지은 뒤 지난 해부터 무항생제 장어 양식에 나섰다. 김씨는 지하 70m에서 뽑아낸 월출산 맥반석 암반수를 일정기간 숙성시킨 다음 기능성 미생물을 배양해 장어가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조성했다. 또 액화산소 공급을 통한 쾌적한 환경 유지와 함께 먹이 찌꺼기와 배설물을 완벽하게 정화했다.

지난 달 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에 장어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은, 납 등 3개 유해물질은 물론 항생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함평에 '문화난장' 펼친다

'국향대전' 행사로 가수 은희·채은옥씨·고두심씨 출연

함평에서 26일 막을 올리는 '2007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문화예술 행사로 함평에 정착한 가수 은희와 채은옥씨, '2008 세계나비·곤충엑스포' 홍보대사인 탤런드 고두심씨 등이 출연하는 문화난장이 펼쳐진다.

문화난장은 옛 손불남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개설한 천연염색 체험장인 민예학당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데'라는 제목으로 26·27일 두 차례 개최된다.

26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1부 행사로 감따먹기 행사에 이어 '김용철과 소리놀이팀' 20여명이 출연해 신명나는 가락과 장단을 선사하며 가면을 쓰고 펼쳐지는 전통무예인 '감성무', 자연숲 강의 등도 진행된다. 2부에서는 가수 은희씨와 채은옥씨가 출연하고 탤런트 고두심씨의 해설로 의상 패션쇼도 선보인다.

지난 1970년대 초 '꽃반지 끼고'를 불렀던 가수 은희씨는 미국생활을 하다 귀국해 지난 2003년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손불남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천연염색 체험장 민예학당을 열었고 감 염색옷인 '봅데강'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완도군, 노인 초청 경로 위안잔치

보건진료소·목욕탕 건립도

완도군이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경로 위안잔치와 다양한 노인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보길면을 비롯해 금당면 등 지역 노인들을 초청, 푸짐한 음식과 함께 실버댄스 공연, 트로트 신동 김바다양 공연 등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다.

또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금당면 보건지소와 보길면 정자 보건진료소도 신축했으며 금당면에는 대중목욕탕도 준공했다.

한편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시범지역인 완도군은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3만원의 건강복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